

## 문화

광주 첫 브런치 콘서트



음악 듣고 대화 나누며

맛있는 공연 즐겼어요

삼삼오오 모인 주부 관객 큰 호응 ... 문화신포니에타 매달 정기 공연키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히트 문화상품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게 예술의 전당의 '브런치 콘서트'다. 브런치 콘서트는 'Breakfast'와

'Lunch'의 합성어로 공연장이나 연단체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하는 차와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오전 11시쯤 열리는 연주회를 일컫는다.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들으며 '아름다운 주제'를 만들어가는 '브런치 콘서트'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시작돼 이후 성남아트홀, 대구 수성아트홀 등 전국 각지에서 '인기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민간 오페스트라인 문화신포니에타 정병열 단장은 광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브런치 콘서트 일자가 다가올수록 속이 바싹바싹 됐다. 정단장은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홍보를 했지만 공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팔린 티켓은 단 두장에

불과했다. 정단장은 "처음부터 잘될 수는 없다. 두명의 관객이라도 있으면 공연을 진행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지난달 31일 브런치 콘서트가 열린 광주시 북구 매곡동 사분위팅문화원 2층 연주홀. 정단장의 우려와 달리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근시간 주부들 3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부부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오전 10시~11시까지 이어진 브런치 타임이 열린 공간에서는 커피와 쥬스, 샌드위치, 후박죽, 멜론, 계란 등 차와 먹을거리가 제공됐다. 뷔페식으로 마련된 멱을거리를 행거 자리에 앉은 참석자들은 일행들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며 음악회를 기다렸다.

오전 11시, 강명진·송민주·권경락·김동규씨로 구성된 문화신포니에타 양상설의 모차르트곡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로 음악회가 시작됐다. 정단장과 단원들은 첫번째 음악회인 만큼

사람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이어 바리톤 황성철씨의 '백화'과 소프라노 노연선씨의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가 연주되자 관객들은 눈을 감고 감상했다.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이 연주될 때는 이끼를 들썩이며 박자를 맞추기도 했고, 낭랑한 플루트가 매력적인 비제의 '아틀르의 여인'도 색다른 감동을 줬다. 연주자들은 모두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에서 공부를 마친 정상급 음악인들로 광주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다.

광주에서는 생소한 행사지만 이날 참가자들의 반응은 좋았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부담도 없어졌다. 또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형순(45·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이날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찾았다.

장씨는 "광주가 문화도시라고는 하지만 삶의 여유도 없고, 즐길만한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 아쉬웠다"며 "브런치 콘서트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클래식 음악도 감상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정단장은 힘들지만 매달 한차례 정기적으로 브런치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다음 음악회는 오는 9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또 초대가 아닌 '유료 티켓'(1만 5000원) 방침도 고수할 계획이다.

정병열 단장은 "브런치 콘서트가 지역 문화계를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cafe.daum.net/morning-concert>, 문의 062-573-2003.

/김미은기자 mekim@



지난달 31일 열린 '브런치 콘서트'에 참가한 주부들이 차와 먹을거리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광주일보